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규백 목사님(두레마을)을 모시고 특강을 듣습니다.

11월 첫 주일(3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조작식품, 육식, 식품첨가물을 주제로 한 환경세미나가 11월 16일(토)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각 선교회장이나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서 생산한 속노랑고구마 주문예약 받습니다. 5kg 16,000원 10kg 28,000원입니다.

지난 23일(수) 이근식 집사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김윤동 씨와 이승진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1월 2일(토) 오후 1시 대구남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단풍과 낙엽이 참 아름답습니다. 숲길 목상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율 2:23~32 / 시 65
딤후 4:6~8 / 눅 18:9~14

시 146:1-10

식 당 봉 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이수정 권현숙 홍주희 이소순 임주빈
 다음 주 식당봉사 : 최경미 배삼순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조장형
 오늘설거지봉사 : 황재모 강지선 5남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2남선교회
 떡과 커피 대접 : 한완식 임정자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많은 생각들로 무겁고,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맑고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깊고 평안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름의 기준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성우 박유경 김신실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김현주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문복순 박영희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안보혜 오자영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윤성종 김윤정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순용 이윤석
 박안수 이주영 오재영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장근성 박희순 정완수
 김재광 정우선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정현숙 조병주 최미자 하현철
 최성애 한인철 조운숙 허명선 홍순구 안홍숙 홍순복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정수 박상욱 박창운 허정운 신민철 안정자 이광석 이경희 이부곤
 임승동 백혜숙 조관행 최숙화 김정길 한훈식 권재용 홍정희 무명8

녹색꿈

김범진 김미현 김용길 최영혜 김진선 김재환 박호규 정영우 김지윤 무명2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오승경
	노순옥	박성희	심심	이준림
	김재흥	최경미	심심	이소순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장영숙
	정경례	진정숙	박옥순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조영순
	권미숙	박미영	허정운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이형숙	윤수진	윤미경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야외	임영선
	정영선	서정순	김경혜	서정순
	박혜경	조항미	정현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놀이 있는 햇별이 아깝다

놀이 있는 햇별이 아깝다는 말씀을 아시는가 이것은 나락도 다 거두어 갈무리하고 고추도 말려서 장에 내고 참깨도 털고 겨우 한가해지기 시작 하던 늦가을 어느 날 농사꾼 아우가 무심코 한 말이다 어디 버릴 것이 있겠는가 열매 살려내는 햇별, 그걸 버린다는 말씀이 당키나 한가 햇별이 아깝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무언갈 자꾸 살려내고 싶다는 말이다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 버릴 것이 없다 아 그러나 나는 버린다는 말씀을 비워낸다는 말씀을 겁도 없이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욕심 버려야 보이지 않던 것 비로소 보인다고 안개 걷힌다고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다 욕심도 쓸모가 있다 햇별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보면 쓸모가 있다 세상엔 지금 햇별이 지천으로 놀고 있다 햇별이 아깝다는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사람이 젖어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별에 내어 말려라 햇별에 내어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별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아깝다 한다

- 정진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십시오. 샅된 욕심은 버려야 할 것이요 하늘의 뜻만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뜻을 붙잡는 것, 거기에 삶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순간의 만족과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붙잡아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뜻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종교개혁기념주일 특강 조규백 목사	옴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성실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김명희 집사 유건형 집사

10	영접위원	윤석철 권혁순 박범희 권미숙 박미영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믿음으로 읽는 글

먹거리 × 탐욕 = 야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을 담고 있었던 책을 하나 꼽으라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멸망사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소」 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삶의 과정으로 여겼던 그들은 유럽에서 온 백인들에 의해 야만인으로 규정당했고, 결국 그 백인들의 손에 의해 야만적으로 스러져 거의 멸절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는 여전히 인디언 거주 구역에서 살고 있지만, 과거 인디언들이 가졌던 그 멋진 삶의 방식들은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동적인 연설로 유명한 인디언 추장 시애틀은 백인들에게 행한 연설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연어 떼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올해의 첫 연어 떼가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연어는 우리의 주된 식량이기 때문에 연어 떼가 일찌감치 큰 무리를 지어 강의 위쪽으로 거슬러 오는 걸 보는 일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없다. 그 숫자를 보고서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에 식량이 풍부할 것인가를 미리 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없이 기쁘까닭은 그 때문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어 떼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또한 한 번의 행복한 겨울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짐작한다.

연어를 보면서 행복한 겨울을 꿈꾸는 추장의 마음은, ‘아 인간의 행복이 바로 이런 데에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현재의 우리가 중요한 무엇에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실상 그는 백인에 의해 자기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 사실 앞에서 ‘이제 삶은 끝났고 살아남는 일만이 시작되었다’ 고 이야기 하였다. 우리 인간들이 행한 영리한 행동들이 실제로는 야만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인디언들만의 이야기인가?

시애틀 추장의 가슴을 뛰게 했던 연어도 최근에 와서는 다른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연어를 더 손쉽게 먹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연어를 양식 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 모자라 빠른 시간에 연어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속도가 3배 빠른 유전자 조작 연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을 한 회사와 생산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된 선택지인 것이다. 대구의 유전자와 연어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아틀란틱 연어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전자를 넣는 것인데 이 연어는 100% 암컷이며, 거의 대부분 염색체를 세 쌍 갖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연어가 과연 미래에 인류와 자연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벌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제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시도하게 하여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꽤나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위기들이 그것이며, 제대로 다 감당할 수도 없는 핵에너지를 다룰 수 있다고 믿고 발전 에너지로 사용하다가 벨트다운 이후 손 못쓰고 있는 이웃 후쿠시마 원전도 그런 예다.

최근 청과 ‘음식이야기’라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먹거리들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들이 만든 현대의 문명이란 것이 우리의 인간성과 인간됨을 희생제물 삼아 쌓아 올린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욕망과 맞바꾼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먹거리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다. 우리의 몸과 먹거리들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야만적인 백인 문명에 희생당한 시애틀 추장의 이야기가 가슴을 때린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야만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자.